

KT “2026년까지 5000억 투자… 미디어 콘텐츠에 AI 접목”

‘KT 미디어 뉴웨이’ 전략

AI 플랫폼 고도화 등 전략 구성
MS 협업, AI 에이전트 도입 예정
대화형 검색으로 콘텐츠 탐색
홈쇼핑 등 외부 파트너에도 활용
FAST·숏폼 등 신사업 모델 추진
IPTV 구조 유연화… 변화 대응



KT 미디어부문장 김채희 전무가 ‘KT그룹 미디어토크’에서 ‘KT 미디어 뉴웨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T

KT가 2026년까지 약 5000억원을 투자해 미디어 사업을 그룹의 3대 핵심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이를 위해 IPTV 플랫폼부터 콘텐츠 제작까지 전방위에 걸쳐 인공지능(AI)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KT는 1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안다즈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T 미디어 뉴웨이’ 전략을 공개했다. 이 전략은 미디어 콘텐츠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하고, 플랫폼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

해 KT는 최근 미디어 콘텐츠 AX(AI 전환) 전문 조직 ‘AI 스튜디오 랩’을 신설했다.

KT의 미디어 전략은 AI 플랫폼 고도화, AI 기반 콘텐츠 제작, 사업 모델 혁신이라는 세 축으로 구성된다.

KT는 지니TV에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업한 미디어 특화 AI 에이전트

를 올 상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대화형 검색으로 콘텐츠를 더욱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탐색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ENA 채널의 군대 배경 코믹 드라마”라는 식의 모호한 요청에도 오리지널 드라마 ‘산병’을 바로 찾아주는 방식이다.

AI 에이전트는 홈쇼핑 등 외부 파트너와의 상생에도 활용된다. ‘지니TV 쇼핑 인사이트’에 AI를 도입해 빅데이터 분석 및 트렌드 도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KT는 지니TV의 AI 플랫폼을 그룹 전체로 확장할 계획이다. KT HCN을 시작으로 IP 방식의 플랫폼을 도입해, 약 1400만 그룹 미디어 서비스 고객이 한층 진화된 AI 기반 TV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KT는 콘텐츠 가치사슬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해 제작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KT 미디어 부문, KT 스튜디오지니, KT ENA 등의 그룹 역량을 결집해 ‘AI 스튜디오 랩’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AI 기반 흥행 예측 심사관, AI 보조 작가·스토리보드, AI 음악·CG·편집, AI 자막·숏폼·PPL 등 콘텐츠 제작 전 과정에 AI를 도입해 제작 생산성을 높인다.

KT 스튜디오지니는 ‘AI 제작 명가, 넥스트 IP 스튜디오’를 비전으로 채널·포맷·글로벌 3대 확장 전략을 통해 지식

재산권(IP) 가치 극대화에 나선다.

KT는 기존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채널(FAST)과 숏폼 등 새로운 사업 모델도 적극 추진한다. 올 상반기 FAST 채널을 지니TV에 시범 적용하고, 성과에 따라 글로벌 시장 진출도 검토한다. KT 스튜디오지니가 보유한 IP 역시 FAST 채널을 통해 해외 시장에 소개될 예정이다.

숏폼 콘텐츠 분야도 본격 강화한다. KT는 KT 스튜디오지니를 숏폼 전문 스튜디오로 포지셔닝하고, AI 기반 제작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현재 국내외 주요 플랫폼과 약 20편의 공동 제작을 협의하고 있다.

KT는 이와 함께 실시간 채널·VOD 중심의 IPTV 구조를 유연하게 개편해, 변화하는 시청자 행태에 대응할 계획이다. 전통적인 유료방송 틀을 넘어서는 혁신을 통해 국내 미디어 생태계를 확장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SKT-경찰청, 총 2610건 악성앱 피해 막아

4개월간 약 1070억 피해 예방
AI 기반 분석 통해 문자 차단
경찰관, 피해자 직접 찾아 조치

SK텔레콤이 경찰청과 협력해 4개월간 2000여건의 악성앱을 발견, 차단 조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SK텔레콤과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610건의 악성앱 설치 의심고객을 확인해 경찰이 직접 피해자에게 출동해 즉시 삭제 조치를

하는 등 약 4개월 간 약 1070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이번 악성앱 차단 협력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SK텔레콤은 1차로 보이스피싱 악성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AI 모델 기반 분석을 통해 악성앱 유포 링크가 포함된 스미싱 문자를 차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공받은 악성 도메인과 IP를 추적해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이어 SK텔레콤은 경찰청의 영장 집행

을 통해 AI 모델 기반의 분석을 통한 악성앱 설치 가능성이 있는 고객군을 추출하고 데이터를 경찰청에 제공하면, 경찰청은 출동 경찰관이 직접 악성앱이 설치된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악성앱을 직접 삭제, 조치해 피해를 줄였다.

SKT와 경찰청의 이 같은 협력은 악성앱 설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고객을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2차적인 금융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했다는 것 의미가 있다. /김서현 기자

LG U+·현대차·기아 시각장애인 버스탑승 특화 단말 실증사업

LG유플러스가 현대자동차·기아 주관으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돕는 특화 단말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대자동차·기아의 2023 아이디어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한 ‘시각장애인 이동접근성 향상을 위한 데이지(Day-Easy) 기술개발’ 과제를 LG유플러스가 수주해 진행했다.

LG유플러스와 현대자동차·기아는 시각장애인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 탑승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 솔루션은 버스의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는 BIS(버스정보시스템)를 연계한 시각장애인 특화 앱에 기반해 동작한다.

이 솔루션에서 시각장애인은 탑승할 버스의 노선을 앱 통해 승차 예약 후, 다가오는 버스의 실시간 위치를 음성 안내와 동시에 힌지광이의 진동으로 안내 받는다. 미세한 진동의 세기를 통해 탑승하려는 버스의 위치와 정차 순서, 상대적 거리를 파악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조종연 메타빌드 대표(왼쪽 일곱번째)와 장광수 안양대 총장(왼쪽 여섯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열린 안양대학교-메타빌드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메타빌드

메타빌드-안양대, AI·연계미들웨어 인재양성

ACx 연계미들웨어 라론 평생교육원 협력 통해 세미나·현장실습 등 추진

메타빌드는 지난 15일 메타빌드 제2 사옥 ‘ACx(인공지능·클라우드 전환) 연계미들웨어 라론 평생 교육원’에서 안양대학교와 AI·연계미들웨어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교류·협력 확대를 골자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용노동부 인가 ‘ACx 연계미들웨어 라론 평생교육원’과 협력해 ▲연계미들웨어, 인공지능(AI)·데이터·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SW) 기술인재 양성 상호 협력

▲SW·AI 관련 세미나·현장 실습·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SW·AI 프로젝트 교과목 개설·운영 등을 추진한다.

메타빌드는 기존 4000여 정부 기관과 기업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던 노하우를 토대로 자사가 보유한 서비스·데이터·애플리케이션 연계미들웨어와 초거대 생성형 AI 모델 라론을 융합해 국내외 최초로 차세대 ‘AI 연계 플랫폼’을 개발한 AI·연계미들웨어 전문 기업이다. 안양대는 AX(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이끌어 갈 디지털 기반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SW 중심 대학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교육기관이다. /김현정 기자

삼성SDS, 제조산업 디지털 혁신전략 소개

‘인더스트리 데이’ 세미나 개최
실제 도입사례, 관련 노하우 공유

삼성SDS가 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과 기업자원관리(ERP), 제조 실행시스템(MES), 제품수명주기관리(PLM), 운영기술(OT) 보안 등 제조 특화 솔루션의 실제 도입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삼성SDS는 16일 잠실 스카이31 컨벤션에서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 미래 준비하는 삼성SDS 인더스트리 데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삼성SDS는 ▲제조업용 AI 에이전트 활용 사례 ▲제조 ERP 혁신 방안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OT 보안 전략 ▲5G 특화망 기반 제조 현장 혁신 ▲AI 기반 디지털 구매 혁신 사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기조 연설을 맡은 삼성SDS 김정욱 컨설팅팀장(상무)은 삼성SDS가 보유한 제조 산업의 핵심 시스템과 글로벌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디지털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제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삼성SDS가 16일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 미래 준비하는 삼성SDS 산업 데이(Industry Day)’ 세미나를 열었다. /삼성SDS

이어서 진행된 ‘AI 에이전트: 하이퍼 오토메이션 핵심 노트’ 세션에서는 제조업의 하이퍼오토메이션 주요 요소와 실제 적용 사례를 공개했다.

또 삼성SDS는 스마트팩토리 확산과 사물인터넷(IoT)·5G 네트워크 확대에 따라 제조 현장의 보안 위협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4시간 가동되는 IoT 센서, 로봇 등 생산 설비와 제조 공정을 실시간으로 보호하는 보안 솔루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사이버 공격 탐지 및 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 /김현정 기자 hjk1@

SK C&C, NH농협 상품 접근성·편의성 개선

디지털금융 플랫폼 전환 구축사업 완료

SK C&C는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이 공동 추진한 ‘NH농협 디지털금융 플랫폼 전환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SK C&C는 약 21개월 동안 NH농협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고객 중심 슈퍼앱 구축 ▲대고객 프로세스 개선 및 사용자·환경·경험(UI·UX) 구현 ▲클라

우드 기반 디지털 금융 플랫폼 전환을 진행하며 소비자의 금융 상품 접근성과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개선시켰다.

이를 통해 농협중앙회 ‘NH콕뱅크’와 NH농협은행 ‘NH올원뱅크’가 슈퍼앱으로 고도화되며, 1300만 NH농협 이용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풀뱅크’ 서비스가 완성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